

‘도가니’ 열풍을 통해 생각하는 오늘날의 ‘정의’

문화, 불편한 진실, 부당한 현실을 바라보는 창이 되다.

김건주

도가니

“법정은 고요하다. 법정을 가득 채운 청각장애인들은 수화로 이 세상을 향해 소리 없이 울부짖는다. 그 분노에, 그 절망에 터럭 하나하나가 울음이 곤두선 느낌. 눈물을 말리며 그 손짓을, 그 몸짓을, 그 아우성을 본다. 변호사들은 증인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데 내가 막을 수가 없다.” 광주 인화학교 성추행 사건의 1심 공판을 맡았던 검사가 검찰 통신망에 올린 재판이 있었던 날에 썼던 일기의 일부다. 일기는 절실한 다짐으로 끝을 맺는다.

“내가 대신 싸워줘야 할 사회적 약자들의 절박한 아우성이 밀려든다. 저들을 대신해서 세상에 소리를 쳐주는 것이 대한민국 검사다.”

잊혀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던 사건이 열풍이 되어 돌아왔다. 영화 한 편의 힘이다. 영화 ‘도가니’는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실제 사건이 바탕이다. 하지만 영화는 창작물이다. ‘도가니’에 나오는 장애아동 성폭력의 생생한 장면과 진실을 은폐하는 추악한 뒷거래는 관객들의 분노를 자아내도록 정교하게 고안된 것이다.

원작 소설 ‘도가니’의 작가 공지영은 작품을 시작할 때부터 ‘공분’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만큼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고 평가한 이들이 많다.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성공했다. 아니, 그 불편함 때문에 영화가 성공했는지도 모른다. ‘도가니’를 통해 일어난 분노는 변태성욕자에 대한 분노가 아니다. 감추고 왜곡하고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

하고 힘으로 제압하고 희생양을 찾는 이들에 대한 분노다. ‘도가니’에 나오는 인권 운동가 서유진의 대사가 분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 준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세상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어떤이는 이것은 1퍼센트에 대한 99퍼센트의 분노라고 표현한다. 그 99퍼센트의 분노가 일어나기 전까지 1퍼센트에 속한 이들은 무엇을 했을까? 관련 법안이 만들어진 것도,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도 영화가 상영된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런데 해당 영화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있다. 영화에 출연했던 어린 연기자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현실과 영화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 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린다. 중요한 지적이다. 옳은 말이다. 그런데 그 말들이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지나친 비약일까?

19금 판정된 노래들

지난해 2월 이후 900곡에 가까운 가요가 여성가족부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유해매체 판정을 받았다. 폭력과 욕설 등 청소년이 접해선 안 되는 곡이 대부분이지만, 판단이 애매한 곡들도 적지 않다. <나는 가수다>에서 장혜진이 부른 ‘술이야’와 김조한이 부른 ‘취중진담’도 ‘19금’ 판정을 받았다. 장혜진의 ‘술이야’는 ‘난 늘 술이야, 맨날 술이야,’ 김조한의 ‘취중진담’은 ‘그래 난 취했는지도 몰라, 실수인지도 몰라. 약한 모습 미안해도 술김에 하는 말이라 생각지는 마’의 가사에서 술이 등장한다는 이유로 유해매체로 지정되며 19금 청취불가 판정을 받았다. ‘낭만밴드 여우비’라는 인디밴드의 곡 ‘여자와 남자가 이별한 뒤에’ 역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었다.

“어젯밤 꿈속에서 그댈 봤죠, 예전 모습 그대로요/ 수줍음 가득했던 웃음으로 내게 안겨왔었죠/ 그대 바람에 차지 못했던 내 모습을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대여 행복해줘요 부디 웃음 가득할 날 영원하기를/ 추억은 가슴에 묻고서 가끔 술 한 잔에 그대 모습 비춰볼게요.”

‘여자와 남자가 이별한 뒤에’의 노랫말이다. 청춘남녀가 헤어진 뒤 상대를 그리워하며 이별 후 쓸쓸한 기분을 표현한 평범한 가사다. 문제는 마지막 부분의 가사 ‘술 한 잔’이었다. 심의 결과에 따라 19세 이하 청소년은 이 곡을 음반이든 MP3로든 들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 술은 담배와 마약처럼 청소년에게 해로운 약물로 규정되어 있어 이 노래가 어린 청소년에게 음주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따라서 그들이 청취해선 안 되는 것이다. 유명 아이돌 그룹 비스트의 곡 ‘비 오는 날엔’도 같은 상황이다.



“비가 오는 날엔 나를 찾아와/ 밤을 새워 괴롭히다가/ 비가 그쳐 가면 너도 따라서/ 서서히 조금씩 그쳐 가겠지/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애/ 뭐 네가 보고 싶다거나 그런 건 아냐...”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라는 가사가 문제였



호주에서 판매되는 담배케이스의 금연광고, 호주 정부는 보다 강력한 규제를 위하여 2012년부터는 로고와 브랜드를 없애고
촌스럽고 충격적으로 디자인한 담배케이스만을 이용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다. 이 노래들이 19금 판정을 받을 만큼 음주나 흡연을 미화하거나 권장하고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술이나 담배라는 단어보다 전반적인 문맥과 내용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청소년의 흡연을 이토록 심각하게 걱정한다면 담배 포장지에 흡연의 심각한 폐해를 경고하는 사진을 호주 수준으로 큼지막하게 넣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호주는 흡연자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호주연방정부가 직접 담배 포장지를 흉측하게 만들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담배갑에 흡연에 따르는 질환을 보여주며 경각심을 갖도록 디자인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째 거듭 이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나도 연예인 부를 수 있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자. “나도 연예인 부를 수 있다.” 서울시장 선거전 중 나온 말이다. 여러 명의 연예인이 상대 후보에 대해 지원유세를 나선 것을 지적하며 한 말이다. 곧이어 상대 후보를 지원 유세했던 해당 연예인 중 한 명이 자신의 지원은 자발적 정치참여였음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반응을 보였다. “연예인 오라가라 그러는 정치인 되지 마십시오.”

국민 모두가 그렇듯 연예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 역시 자유로워야 한다. 요즘은 자의로 사회 참여에 열심인 대중예술인이 많이 보인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불이익을 예상하면서도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낸다. 그런데 예상했던 불이익은 예상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다. 여당 소장과 의원 몇몇이 서울시장 선거 패배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현 정부를 “웃자고 한 풍자마저도 법의 잣대를 들이대어 처벌하고자 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

아름답고 행복한 이야기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만이 대중문화의 역할은 아니다. 시대의 고통과 슬픔, 절망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대중문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몫이다. 특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가치이자 역할이다.

압하는 정부”로 빗대며, ‘비판적 방송인의 퇴출’을 지적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 시대의 부당한 현실이다.

불편한 진실과 직면하는 일은 유쾌하지 않다. 그렇다고 권력 있는 자가 힘없는 앵무새의 목을 꺾어서는 안 된다. 대중문화는 그 시대와 상호작용하기 마련이다. 감추고 싶은 부분을 드러내고 문제를 지적해 준다. ‘도가니’ 열풍에서 보듯 대중을 선동하기도 한다. 대중문화는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도구다. 가장 대중적인 미디어인 TV의 경우, 사실상 모든 TV가 교육 TV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TV를 시청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정보와 지식을 제공받으며 교육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TV가 어떤 내용을 가르치느냐?’ 하는 것이다.

아름답고 행복한 이야기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만이 대중문화의 역할은 아니다. 시대의 고통과 슬픔, 절망을 외면하는 외눈박이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한 외눈박이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대중문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몫이다. 이것이 특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가치이자 역할이다.

인간은 문화라는 렌즈를 통해 삶의 비전과 사회 질서를 표현하고 경험하고 살핀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는 ‘삶으로 표현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와 사회는 서로 다르면서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를 문화라고 한다면, 사회는 우리가 거주하는 집이다. 문화가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사회는 ‘하드웨어’다. 하드웨어가 없으면 그 어떤 소프트웨어도 실행할 수 없다. 반대로,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하드웨어는 작동하지 않는다.

문화는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백신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다. ‘정의’를 왜곡하는 문화, ‘정의’를 잃어버린 문화는 바이러스 프로그램으로 기능할 것이다. 반면,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고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는 문화는 백신 프로그램으로 기능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제2, 제3의 ‘도가니’가 필요하다. 정의에 목이 말라 분노하는 99퍼센트의 갈증이 해결될 때까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정의이자 평화인 “샬롬”이 온전히 실현될 때까지 말이다.



김건주 문화평론가, 목사. 한양대학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공부했다. 20년 가까운 시간을 출판기획자, 문화사역자로 사역해 왔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 CUP 출판위원, 월간 월드뷰 편집장으로 섬기고 있다.